

‘2023 코리아시즌’, 문화로 한국과 영국을 잇다

- 2023년 한-영 수교 140주년 계기 영국에서 두 번째 ‘코리아시즌’ 개막
- 8월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한국 특집주간 운영, 11월 웨스트민스터 대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류 등 양국 우정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기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 이하 진흥원)과 함께 ‘2023 코리아시즌’을 영국에서 개막해 한국과 영국을 문화로 잇는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K-컬처의 확산 잠재력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양국의 문화·인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코리아시즌’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첫 번째 ‘코리아시즌’을 진행한 멕시코에 이어 올해는 한-영 수교 140주년과 세계적 축제인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의 한국 특집주간(Focus on Korea) 운영을 계기로 영국을 두 번째 ‘코리아시즌’ 국가로 선정했다.

박보균 장관은 “한국과 영국은 자유 가치 아래 독창력과 상상력, 감수성이 풍부한 문화예술의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번 ‘코리아시즌’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솔루션 플랫폼’이자 K-컬처를 매개로 사회,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 7월 한식 문화행사와 현대미술 전시 개최

8월,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참가, 한국 특집주간 운영

7월 1일(토)과 3일(월)에는 런던의 레스토랑 코르드(CORD)에서 한식 워크숍과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미식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 런던 캠퍼스와 현지에서 한식 재료를

접목해 미술랭 원스타를 받은 유러피안 레스토랑 ‘솔잎(Solip)’의 셰프인 박용철, 기보미 부부가 협업한다. 7월 20일(목)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이진준 작가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문화예술에 특화된 아트센터 ‘이씨 컨템포러리(ESEA Contemporary)’에서 미디어아트를 전시한다. 소리, 인공지능(AI) 기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탐구하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환경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환기할 계획이다.

이어 8월에는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8. 4.~8. 27.)’에서 한국 특집주간 ‘포커스 온 코리아(Focus on Korea)’를 운영한다.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3,000여 개의 문화예술 공연을 보기 위해 매년 전 세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예술 축제이다. 특히 올해는 개별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했던 예년과 달리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 문화예술가와 단체의 5개 작품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국 특집주간에서는 노부스 콰르텟의 현악 사중주(8. 8.), KBS교향악단의 드보르자크와 차이콥스키 작품 연주(8. 11.),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체르니, 리스트 등 19세기 작품 리사이틀(8. 15.),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의 바흐, 이자이, 밀슈타인 작품 리사이틀(8. 17.)과 같은 클래식 음악 공연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 ‘트로이 전쟁’ 신화에 우리 고유의 판소리를 입혀 재탄생 시킨 국립창극단의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8. 9~11.)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 9월 안은미 현대무용 공연, 11월 미래세대 작가 김희천 교류전 개최 등

9월에는 영국의 런던 바비칸센터와 맨체스터 라우리 극장에서 세계적인 무용가 안은미가 이끄는 팀의 <드래곤즈(Dragons)> 공연이 열린다. 안은미 씨는 2009년 백남준 국제예술상을 수상하고 2018년 프랑스 대표 극장 ‘파리 시립극장(Theatre de la Ville)’의 한국인 최초 상주 안무가로 선정되는 등 세계 무용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이다. 3차원(3D) 영상

작업과 매핑 이미지를 활용해 초월적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아시아의 ‘용’을 구현함으로써 영국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김희천 청년 작가는 11월에 세계적 갤러리인 런던 사우스뱅크센터 헤이워드 갤러리에서 한국의 아트선재 갤러리와 협업해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를 주제로 비디오 아트를 전시한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현대미술센터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는 재학생과 연구진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예술작품 제작을 논하고 워크숍 등을 진행해 양국 미래세대의 인적 교류에도 박차를 가한다.

Ⅰ 6. 29. 코리아시즌 참여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하는 기자간담회 개최

문체부는 현지 행사 시작에 앞서 ‘코리아시즌’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6월 29일(목), 아트선재센터(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선보일 창작 <트로이의 여인들>의 극본을 쓴 배삼식 극작가와 ▲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KBS교향악단 무대를 기획한 손유리 팀장, ▲ 영국 최대 힙합 페스티벌 ‘브레이킹 컨벤션(Breakin’ Convention, 4. 28.~29.)’에 참가해 전통음악과 비보잉을 결합한 공연콘텐츠 <메리 고 라운드>를 선보인 무용팀 무버(MOVER)의 김설진 예술감독, ▲ <드래곤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 무용가 안은미, ▲ 뉴미디어 아티스트 이진준, ▲ 비디오 아트를 선보이는 김희천 작가 등이 행사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 기자간담회 사진 별도 배포 예정

- 붙임 1. ‘2023 코리아시즌’ 홍보 이미지
- 2. ‘2023 코리아시즌’ 프로그램 일정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2561)
		담당자	사무관	김세진 (044-203-2571)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2023 Korea Season

KOREA
SEASON
2023 UK



No	프로그램명	일자	장소	주요 내용	
1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2.13.	런던 바비칸센터	◦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단독 리사이틀	
2	'MOVER' 힙합 페스티벌 참가 및 영국 투어공연	4.28.~29. 및 5.17.~6.14.	런던 새들러즈 웰즈 극장, 9개 도시	◦ 세계적 무용가인 김설진과 현대무용·스트릿 댄스팀 '무버(MOVER)'가 영국 최대 규모 힙합 축제에 참여, 9개 도시 투어공연 추진 * 전통음악과 비보잉 결합한 작품 공연	
3	김선욱 &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	5.17.	런던 바비칸센터	◦ 1904년 창단된 세계 최고 수준의 현자 오케스트라와 차세대 K-클래식 주자인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협연 * '06년 영국 리즈 피아노 콩쿠르 아시아인 최초 우승자	
4	제인 진 카이젠 무빙이미지 전시	5.25.	런던 테이트 모던	◦ 제주도 역사, 인간과 환경의 연계 등을 주제로 한 비디오 및 영상작업 신작 발표 *제주도 출생, 덴마크에 입양된 시각예술가이자 영화감독으로,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로 참여	
5	한국 식문화 행사 르꼬르동 블루 협업	7.1., 7.3.	르 꼬르동 블루 런던	◦ 르 꼬르동 블루와 협업, 한국인 최초 런던에서 미술랭 원스타를 받은 한국 셰프(박웅철&기보미)와 한식 행사 개최	
6	이진준 미디어아트 전시	7.20.~ 10.13.	주영한국문화원, ESEA Contemporary	◦ 뉴미디어 아티스트 이진준 작가의 영상, 소리, AI 기술 등 신기술 융합한 미디어 전시로 인간-환경 관계 탐구를 표현	
7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Focus on Korea>	노부스 콰르텟	8.8.	에든버러 퀸즈홀	◦ 현악 4중주 공연
		국립 창극단	8.9~11.	에든버러 페스티벌 씨어터	◦ 「트로이의 여인들」 총 3회 공연
		KBS 교향악단	8.11.	에든버러 어셔홀	◦ 교향악단 지휘자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
		손열음 클라라 주미 강	8.15. 8.17.	에든버러 퀸즈홀	◦ 피아노 리사이틀 ◦ 바이올린 리사이틀
8	안은미 댄스 컴퍼니 「Dragons」 공연	9.20.~23. 9.26.~27.	런던 바비칸센터 맨체스터 라우리 극장	◦ 바비칸센터 자체 기획으로 한국 작품이 소개되는 첫 시도로, 세계적 무용가 안은미 무용단의 대규모 작품 '드래곤즈*'가 런던에 진출하는 첫 사례 * 3D 영상작업, 매핑 이미지 등 활용	
9	김희천 한국 신진작가 교류전	11월	런던 사우스뱅크센터 헤이워드 갤러리 및 주영문화원	◦ 시각예술을 선도하는 세계적 갤러리인 헤이워드에서 한국 청년 작가 김희천이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를 주제로 작품전시 * 2018년 세계적인 작가 양혜규 이후 첫 한국 작가전 개최	
10	한국영화 특별상영회	11월	미정	◦ 신진 영화감독, 장애, 다양성 등을 주제로 8편 내외 한국영화 상영 * 일부 영화상영 시 영국 수화 도입, 배리어 프리 형식으로 진행	
11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협업 학생교류	10월~ 11월	런던, 서울	◦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현대미술 연구 센터(CREAM)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 예술센터 간 작품 제작 등 인적 교류	